

현안마다 지방채...늘어나는 빚 광주시 중기재정 빨간불 켜졌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 증가
동광주~광산 IC 확장에 3500억
을 지방채 1조4409억원 이를 덧붙여
저리 광주은행서 1000억 대출 추진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서 대안 모색



광주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열린 광주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현안과 2023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광주시 제공>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과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구간 확장사업에 광주시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큰 폭의 채무 증가가 예상되는 등 기폭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개통 지연이 예상되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지방채 재원 마련도 부담이지만,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동광주-광산IC' 구간 확장 사업비 7000억원의 50%인 3500억원을 광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시의 재정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각종 사업비 부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채 발행까지 검토중이고,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에서 시비 분담금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동광주-광산IC' 구간 확장 총 사업비 7000억원 중 3500억원을 광주시가 부담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4년 11월 한국도로공사와 광주시가 사업비의 50%를 도로공사가, 나머지 50%를 광주시가 부담하기로 협약했기 때문이다. 공사가 내년 착공 예정임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시비 부담이 뒤따르게 된다.

현재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 대부분의 건설 사업비 예산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고 있어서 '동광주-광산IC' 구간 확장에 투입될 재정도 사실상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큰 폭의 채무 증가가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가 시비 매칭(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비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인데다, 도시철도 건설 등 재정 수요가 많아 향후 예산 확보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지방채 이자 부담도 커지는 데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최근 '레고랜드' 지방채 채권을 안 갖겠다고 선언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쉽지 않아 지자체가 받는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광주시의 지방채 채무액은 2020년도에 1조180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뒤 지난해 1조

2502억원에 이어 올해는 1조4409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올해 333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공공자금이 370억원, 지역개발채권 700억원, 민간자금 2268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자금 발행채 가운데 1000억원은 이례적으로 시 금고인 광주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최근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지방채 금리보다 금융기관채가 금리가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다음달 3일 도시철도 2호선 등 각종 사업비 부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첫 지방채 126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예상치 못했던 각종 현안 사업에 시비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와의 분담금 조정 협의를 통해 시비를 줄이는 방법과 동시에 효율적인 중장기 재정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광주시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광주시 재정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형석(광주 북구을)의원은 "국회 행안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에 의한 분담금을 조절·심의

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있다"면서 "이 위원회를 통해 광주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동광주-광산IC' 구간 확장 사업은 당장 내년부터 시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장기 재정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지방채 부담이 늘어나 정부와 분담금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동광주-광산IC' 구간 확장 사업비도 시비 분담금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수용·불허할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가을... 두 바퀴의 사랑 '2022 자전거 타기 Green 자전거 축제'

11월 13일 영산강 일원

영산강변의 정겨움을 느끼고, 가족애를 나누며 남도의 가을을 체험하는 '2022 자전거 타기 Green 자전거 축제'가 11월 13일 영산강자전거길안내센터(극락교)와 승촌보, 영산대교 일원에서 열린다.

자전거축제는 크게 ▲자전거대행진 사랑코스(45km) ▲자전거대행진 행복코스(25km)로 나눠 진행된다. (전부 무료 참가비 무료)

자전거대행진 행사는 영산강자전거길안내센터에서 시작해 서창교-승촌보-나주대교-영산대교-승촌보-서창대교-영산강자전거길안내센터 구간에서 열린다.

늦가을 정취 속에서 가족과 함께 영산강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신체 건강한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소정의 기념품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일 시 : 2022년 11월 13일(일) 오전9시
- 장 소 : 영산강자전거길안내센터(극락교)
- 중 목 : 자전거대행진
- 참가비 : 전 종목 무료
- 주 최 : 광주일보사, 자전거사랑전국연합광주본부
- 주 관 :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광주본부
- 후 원 : 광주광역시
- 문 의 : 062-376-3112(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광주본부)

光州日報社

5년간 장병 디지털교육에 850억원 투자

5만명 디지털산업 예비인력 양성

정부가 군 장병 디지털교육에 5년간 850억원을 투자해 인공지능(AI) 전문인력 1000명을 육성한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군 장병 5만명 디지털산업 예비인력 양성' 방안을 보고했다.

두 부처는 양방향 온라인 플랫폼으로 강사가 24시간 내 피드백을 제공하는 실습형 소프트웨어·AI 교육을 장병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우수 역량 장병에겐 기업 현직자가 멘토로 연계되고 자격증 취득도 지원된다. 군내교육 시범 부대를 지정하고 소프트웨어(SW)·AI 교육장을 구축하는 한편 국방 AI 경진대회도 개최한다.

올해는 육군 6사단·5군단, 해군 제7기동전단, 공군 7항공통신전대, 해병대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등 6곳에 교육장이 구축됐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0월 2022년부터 5년간 장병 5만명에게 맞춤형 SW·AI 교육을 제공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올해 디지털산업 예비인력 2천명과 AI 인력 100명을 육성했다고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보고했다. /연합뉴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2022-2023

저나바마이행

남도이공

전남여행의 모든 정보는 이곳에!

B
▶
f
📷

남도여행길잡이

검색